

간암 주요 위험인자 'B형 간염' 백신 접종으로 예방

건강 바로 알기 간염 원인과 예방법

이두영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진료과장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해독작용과 영양소 생성, 각종 대사 작용을 한다. 하지만 간은 인체의 화학공장인 동시에 침묵의 장기이기도 하다. 약 80%까지 손상되어도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에 생긴 염증을 방치할 경우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간염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만큼 자칫하면 그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염은 A, B, C, D, E, G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선 A·B·C형이 흔히 발생한다.

의학적으로 간염을 정의하면,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간염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약물, 알코올, 화학 약물, 독초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병원체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으로 구분되며, 드

침묵의 장기 '간' 손상 심해도 뚜렷한 증상 없어 A·B·C·D·E·G형 중 국내에선 A·B·C형이 흔해 복부 불편감·피로감·황달기 증상 '급성간염' 의심 정기검사 필수...물 끊어 마시고 음식은 익혀서

물기는 하지만 자가면역성 간염이나 윌슨병 등도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침묵의 장기인 간염이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간염은 그 지속 기간에 따라서 급성(6개월 이내)과 만성(6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급성 간염의 경우 식욕 부진, 오심, 구토 등의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우상 복부 불편감을 느끼면 심한 무력감이 동반된다. 또한 미열이나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을 수 있고, 눈의 흰자위가 보이고 피부가 노랗게 되고 소변 색이 진해지는 등 황달기가 나타난다. 심하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한다. 간혹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되면 복수가 차고 간성 뇌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만성 간염은 급성 간염에 걸린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간내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성 간염은 무증상이 대부분이지만 피로감이나 무

력감이 쉽게 동반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간염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먼저 환자의 가족력, 음주력, 약물 복용력, 음주력, 여행력, 침습적 시술, 생활 방식 등을 자세히 청취하여 간염의 위험 인자를 조사한다. 혈액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상태와 간 기능을 검사한다. 이어 간의 상태와 복부 장기의 상태를 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간염의 원인은 간 질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간 조직을 소량으로 떼어 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간염을 종류별로 나뉘보면, 우선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으로 간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보균자의 변을 통해 전염 된다. 대부분 자연치유 되지만 드물게 고령·만성 간 질환



이두영 진료과장

A형 간염 + 예방접종이면 감염 걱정 덜!

접종대상 12~23개월의 모든 소아 및 '고위험군 성인'

접종시기 1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에 2차 접종

*A형간염 고위험군

-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
-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 혈액응고 질환자
- 만성 간질환자
- 불법 약물 중독자

성 B형 간염 상태에서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접종 대상은 모든 영유아와 B형 간염 항원·항체가 없는 성인이다. 만약 어릴 적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성인이라도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하다. B형 간염은 혈액·체액·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데, 이때 보균자가 비만, 당뇨이거나 음주를 즐길 경우 간암 발병률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C형 간염은 치료율이 높으나 백신이 없는 상태이다. 주 감염 경로가 성 접촉이나 오염된 혈액 감염 등인 만큼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손톱깎이나 면도기 등을 공유하지 않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간은 전체의 80%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일상생활에서 증상을 느끼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두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진료과장은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과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라며 "물은 끊어드시기를 권장하며, 여름철 생선회 같은 날 음식 섭취를 피해주시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는 전격성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나,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모든 연령층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감염 발생 확률이 95%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위험인자이다. 특히 만

전남대병원 연구팀, 대한핵의학회 미래의학자상 수상

핵의학과 김지혜·신경과 최강호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김혜진 학생

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은 10일 "핵의학과 김지혜 교수와 신경과 최강호 교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1학년 김혜진 학생이 대한핵의학회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교수팀은 최근 개최된 '제64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23차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학술대회'에서 '정량적인 뇌파검사 결과를 활용한 뇌 아밀로이드 PET-CT 결과 예측'이라는 논문으로 미래의학자상을 받았다.

김 교수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뇌 아밀로이드 PET-CT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뇌파검사의 예측인자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한 뇌 아밀로이드 PET-CT의 양성 여부를 약 90%의 음성예측



김지혜 교수



최강호 교수



김혜진 학생

도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대병원 핵의학과는 5년 연속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미래의학자상을 받게 됐다. 특히 김 교수는 3년 연속 미래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교수팀과 함께 연구한 학생이 미래의학자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뇌 아밀로이드 PET-CT 검사

가장 정확한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검사이지만 고가인만큼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PET-CT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치매 환자를 선별하는데 이 연구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강호 교수는 "이 연구를 수행한 김혜진 학생은 전남대병원 학생공동연구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있으며 훌륭한 의과 학자로 성장하고 있다. 의학과 1학년 학생과 진행한 연구가 미래의학자상으로 선정돼 우리 병원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의과학자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QPS활동 보고대회...4개부서 수상

의료질 향상·환자 안전관리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상숙)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제 23차 QPS활동 보고대회를 11월 진행했다.

QPS활동은 '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의 약자로 의료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관리를 의미한다. 25개 부서가 활동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예심을 거쳐 선정된 4개 부서(재활치리실, 5병동, 8병동, VOC팀)가 지난 7일, 제중을 대강당

에서 사례 구연 발표 후 수상했다.

이상숙 병원장은 "로비에 전시된 여러 포스터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환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마음이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연발표를 마친 후 윤여표 대표(특허법인 엘)는 '특허 제도 이해 및 활용'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필수보건의료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연구팀은 10일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의 체계 구축사업 제2차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협의체 회의에는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최형호 목포의료원장, 김대연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 신민호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강성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등 총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대표협의체 회의는 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 체결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현황 공유, 화순전남대병원 정유진 응급의료센터장의 기초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 2025년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심포지엄 공동 개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편 전남광역책임의료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 연구팀은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 향상을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 안전 ▲정신건강증진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